

2025년, 수출시장 생존기업 1.3만개사 5년 내 최대

- 전세계 178개국에 기계·컴퓨터 등을 중심으로 평균 81만 달러 수출
- 10만 달러 미만 수출기업이 67%, 1개 업체가 2.1개국에 2.3개 품목 수출

※ 이 보도자료는 '26.4.30일 공표한 "관세청, 2025년 기업무역활동통계"의 일부통계를 심화분석한 것으로, 수출시장 생존 사업체에 대한 분석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함

< 요약 >

- ◇ (현황) 2025년 기준, 전년도('24년) 수출시장에 진입해 1년간 활동을 지속한 생존기업은 전년대비 1.9% 증가한 12,602개사였다.
 - 최근 5년 내 가장 많은 수를 기록하였고, 시장진입 초기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수출활동을 이어가며 우리 수출의 지속 성장을 뒷받침하였다.
 - 수출액은 전년대비 22.7% 증가한 101억 달러로 전체 수출기업 (101,792개사)의 12.4%를 차지했으며, 지난해('25년) 우리나라 수출 최초 7천억 달러(7,093억 달러) 달성에 힘을 보탰다.
- ◇ (품목) 기계·컴퓨터 > 전기제품 > 플라스틱 > 화장품 > 자동차 등의 순이었고 업체수 기준, 1개 업체가 평균 2.3개 품목을 수출했다.
- ◇ (규모) 업체당 평균 수출액은 81만 달러였고, '10만 달러 미만'이 전체의 67%로 발전가능성이 큰 소규모 수출업체가 대다수를 차지했다.
- ◇ (국가) 수출국가는 총 178개국이었으며, 중국 > 미국 > 일본 > 베트남 > 유럽연합 등 순으로 업체수 기준, 1개 업체가 평균 2.1개국에 수출했다.
- ◇ (권역) 수도권(서울·인천·경기) > 동남권(부산·울산·경남) > 대경권(대구·경북) > 중부권(세종·대전·충남·충북) 등 순 업체수 기준으로 나타났다.

담당 부서	정보데이터정책관 데이터담당관	책임자	과 장	강경훈 (042-481-7790)
		담당자	사무관	박정률 (042-481-7845)
			주무관	이기영 (042-481-7878)

□ (현황) 2025년, 전년도 수출시장에 진입*해 1년간 수출활동을 지속한 생존기업*은 전년대비 1.9% 증가한 12,602개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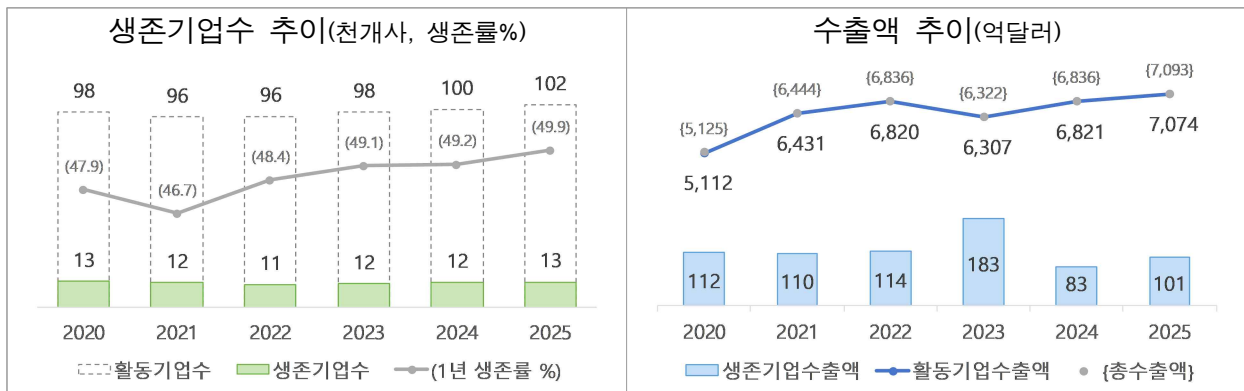
* 전년도(t-1) 수출입 실적이 없다가 당해 연도(t) 실적 발생한 기업(이하 진입기업)

○ 최근 5년 내 최대(기업수 기준)로, 2025년 수출실적이 있는 전체 기업(활동기업)의 12.4% 차지

- 수출액은 전년대비 22.7% 증가한 101억 달러로 전체 활동기업 수출액*(7,074억 달러)의 1.4% 차지

* '25년 우리나라 전체 수출은 7,093억 달러, 이 중 기업수출이 7,074억 달러로 99.7% 차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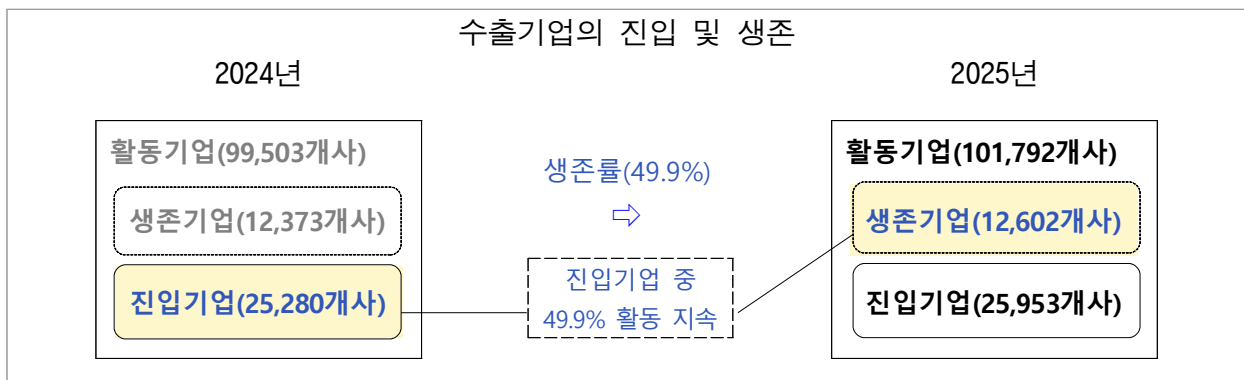
○ 생존기업은 수출시장 초기진입단계의 불확실성과 난관을 극복하고 활동을 이어가는 만큼 수출성장 밑거름



(단위 : 개사, 전년대비 증감률 %, 생존율 %)

	2020년	2021년	2022년	2023년	2024년	2025년
생존기업수	12,807	12,125	11,270	11,627	12,373	12,602
증감률%		△2.9%	△5.3%	△7.1%	3.2%	6.4%
생존률*(1년)	(47.9)	(46.7)	(48.4)	(49.1)	(49.2)	(49.9)
진입기업수	25,984	23,303	23,659	25,158	25,280	25,953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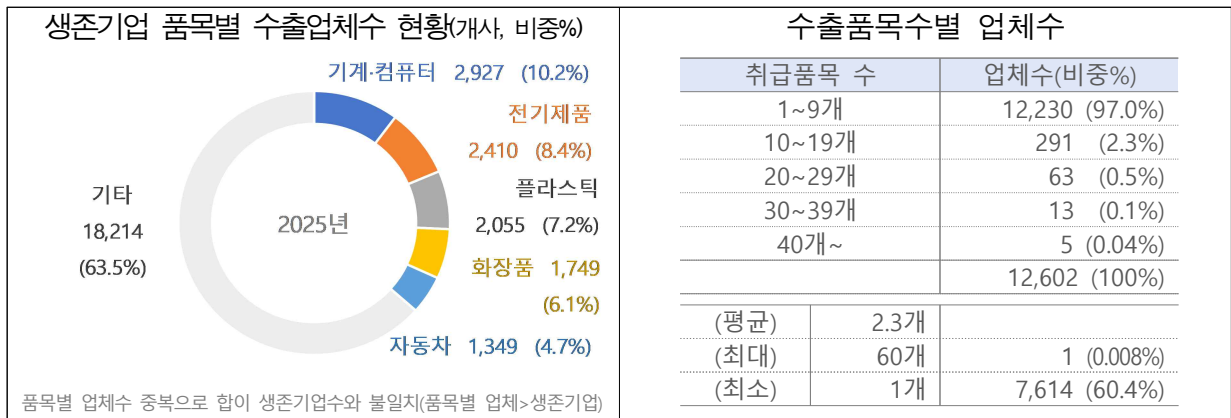
* 생존율: 진입기업이 시간경과에 따라 연속하여 수출입 활동을 계속(1년)한 비율



□ (품목) 2025년 생존기업(12,602개사)이 수출한 품목*을 보면, 업체수 기준 기계·컴퓨터(비중 10.2%), 수출액 기준 자동차(23.7%) 1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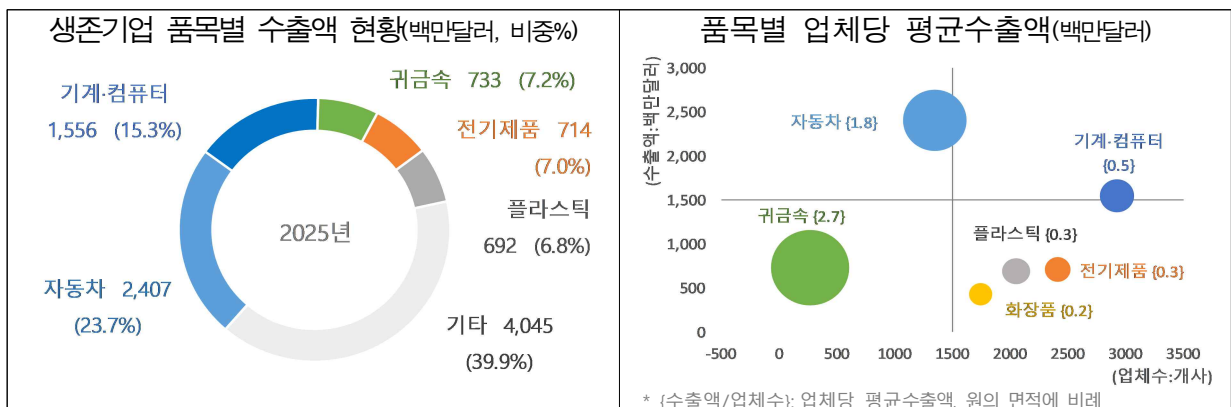
* HS(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) 2단위(96개) 기준

- (업체수) 생존기업이 많이 수출한 품목은 기계·컴퓨터(비중 10.2%), 전기제품(8.4%), 플라스틱(7.2%), 화장품(6.1%), 자동차(4.7%) 등의 순
- 1개 업체가 평균적으로 수출한 품목의 수는 2.3개고, 10개 미만 품목을 취급한 기업이 전체 생존기업의 97%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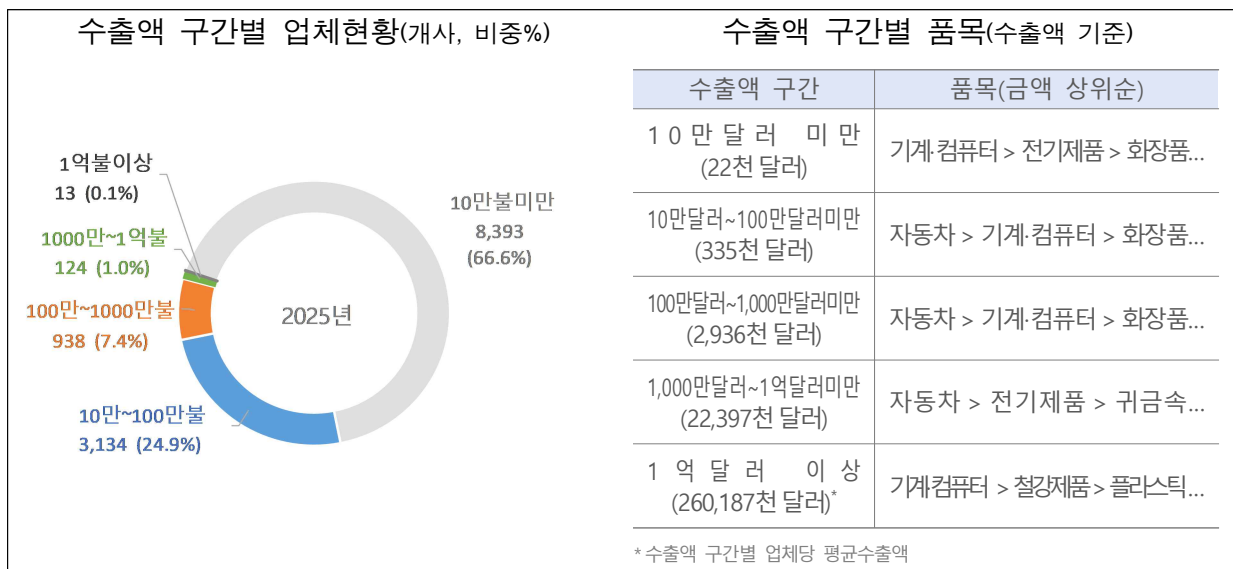
○ (수출액) 품목별 수출규모는 자동차(비중 23.7%), 기계·컴퓨터(15.3%), 귀금속(7.2%), 전기제품(7.0%), 플라스틱(6.8%) 등 순

- 1개 업체당 수출액은 업체수가 적은 귀금속(수출액 733백만 달러 / 업체수 273개사)이 가장 크고, 다음은 자동차(2,407 / 1,349)로 나타남
- 기계·컴퓨터(수출액 1,556백만 달러 / 업체수 2,927개사), 플라스틱(692 / 2,055), 전기제품(714 / 2,410), 화장품(432 / 1,749)은 업체수가 많고, 수출규모는 작아 상대적으로 소규모 수출업체 중심으로 구성



□ (규모) 2025년 생존기업(12,602개사)을 수출규모별로 보면, ‘10만 달러 미만’이 전체의 67%(8,393개사)

- 전체 생존기업의 평균수출액은 81만 달러였고, 업체수가 가장 많은 ‘10만달러 미만’ 구간의 업체당 평균수출액은 2만 달러
 - ‘10만달러 미만’의 경우 기계·컴퓨터, 전기제품, 화장품 등 순으로 수출이 많았고, ‘10만달러 이상’부터 ‘1억달러 미만’ 수출 구간은 공통적으로 자동차를 가장 많이 수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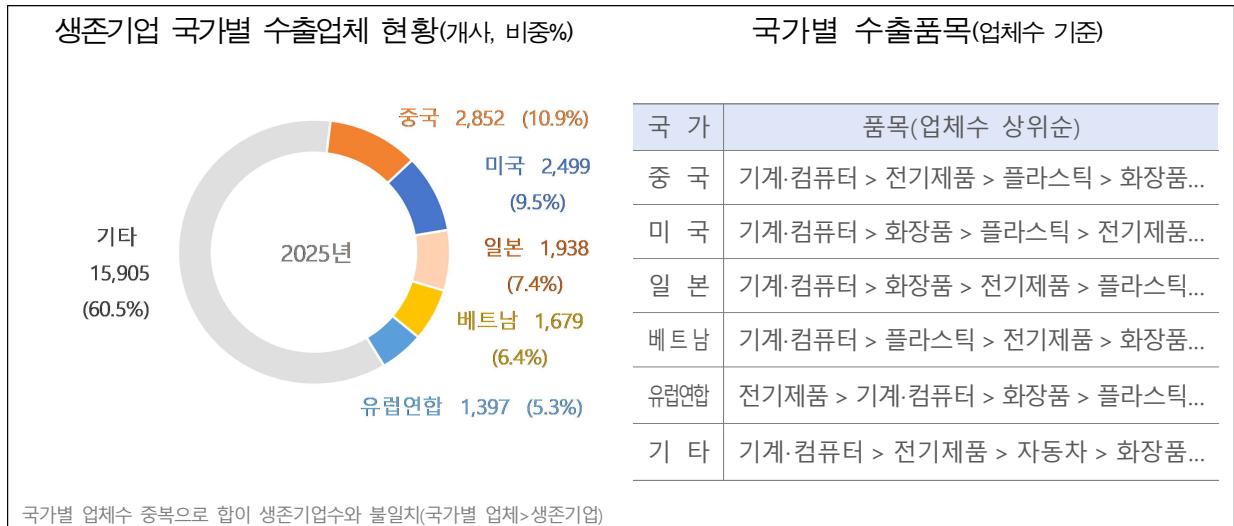


□ (국가) 2025년 생존기업이 수출한 국가는 총 178개국으로, 업체수, 수출액 모두 중국(업체수 비중 10.9%, 수출액 비중 14.0%) 최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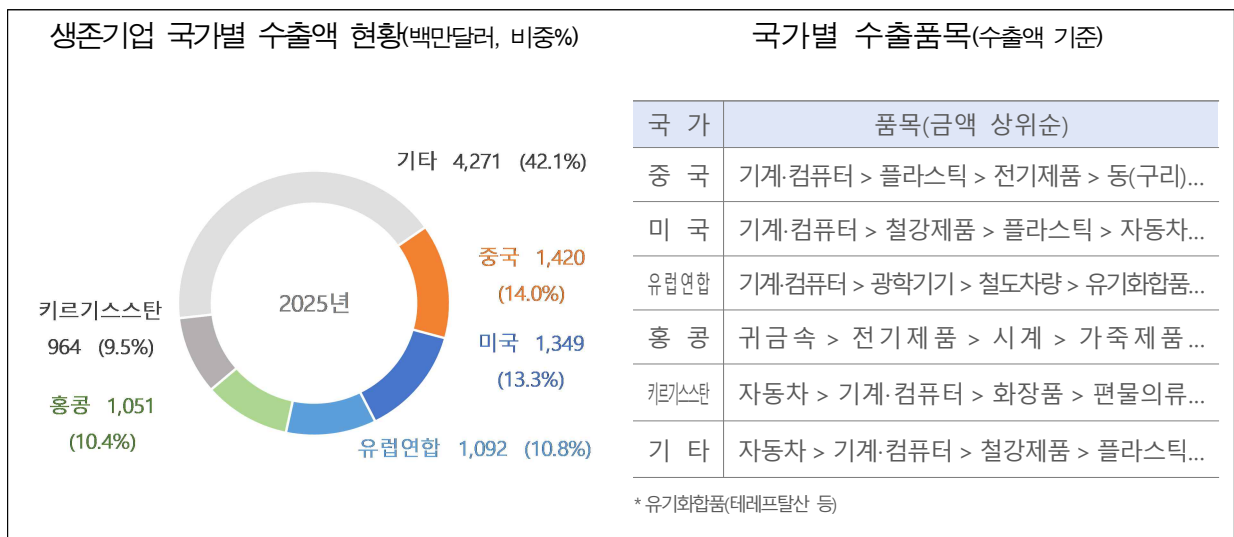
- 1개 업체가 평균 2.1개국 수출, 10개국 미만 수출업체가 전체 생존기업의 97%(12,272개사)
 - 1개 국가에 수출한 업체가 66%인 8,290개사, 50개 국가 이상으로 수출한 생존기업은 3개사

수출국가 수	업체수(비중)
1~9개국	12,272 (97.4%)
10~19개국	251 (2.0%)
20~29개국	53 (0.4%)
30~39개국	16 (0.1%)
40~49개국	7 (0.1%)
50개국~	3 (0.02%)
	12,602 (100%)
(평균)	2.1개국
(최다)	68개국 1 (0.01%)
(최소)	1개 8,290 (65.8%)

- (업체수) 가장 많은 생존기업이 진출한 나라는 중국(비중 10.9%), 미국(9.5%), 일본(7.4%), 베트남(6.4%), 유럽연합(5.3%) 등 순
- 1위 중국은 기계·컴퓨터, 전기제품, 플라스틱, 화장품 등 순으로 수출업체가 많았고, 2위 미국은 기계·컴퓨터, 화장품, 플라스틱 등, 3위 일본은 기계·컴퓨터, 화장품, 전기제품 등 순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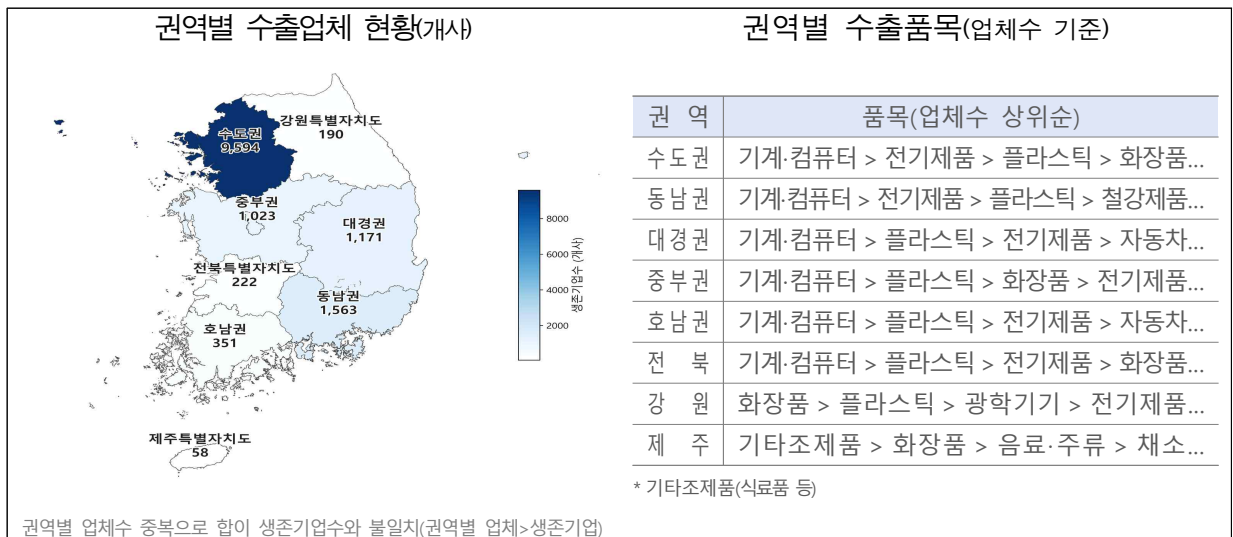
- (수출액) 수출규모로 보면, 중국(비중 14.0%), 미국(13.3%), 유럽연합(10.8%), 홍콩(10.4%), 키르기스스탄(9.5%) 등의 순
- 생존기업 수출액 최대인 중국은 기계·컴퓨터, 플라스틱, 전기제품 등 순이었고, 다음으로 미국은 기계·컴퓨터, 철강제품, 플라스틱 등 순



□ (권역) 2025년 생존기업(12,602개사)이 분포한 권역을 보면, 수도권이 업체수(비중 67.7%), 수출액(66.2%) 모두 최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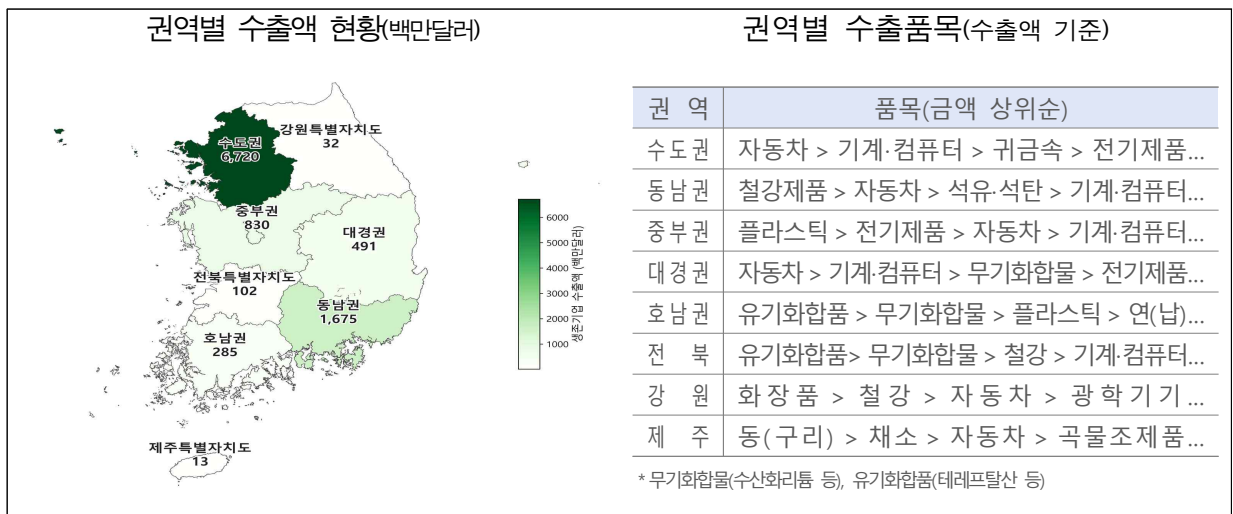
○ (업체수) 생존기업이 가장 많은 권역은 수도권(비중 67.7%), 동남권(11.0%), 대경권(8.3%), 중부권(7.2%) 등 순

- 수도권은 기계·컴퓨터, 전기제품, 플라스틱 등 순으로 생존기업이 많았고, 제주특별자치도는 기타조제품, 화장품, 음료·주류 순



○ (수출액) 수출규모로 보면 수도권(비중 66.2%), 동남권(16.5%), 중부권(8.2%), 대경권(4.8%) 등 순

- 수출규모가 가장 큰 수도권은 자동차, 기계·컴퓨터, 귀금속 등 순으로 수출액이 많았고, 동남권은 철강제품, 자동차, 석유·석탄 등 순



일 러 두 기

□ 작성 목적

- 이 보도자료는 기 공표된 「2025년 기업무역활동통계*」의 일부 내용을 심화분석한 것임
 - * '26.4.30일: “관세청, 2025년 기업무역활동통계 공표” 보도자료
 - '26.5.29일: “2025년, 수출시장 진입기업 2.6만개사 5년 내 최대” 보도자료
- 2025년 기준, 전년도 수출시장에 진입해 1년간 수출활동을 지속한 사업체인 생존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

※ 관세청은 2017년부터 수출 전략 및 정책 수립 지원을 위해 무역통계와 기업의 무역활동을 연계 분석한 「기업무역활동통계」(기업의 무역시장 신규진입, 지속 활동, 퇴출(중단) 등 생애주기 전반 파악)를 매년 공표하고 있음

□ 유의 사항

- 수출시장에 진입해 1년간 수출활동을 지속한 사업체(생존기업)에 한정된 내용으로 '2025년 기업무역활동통계'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

□ 주요 용어 설명

- 활동기업: 당해 연도(t)에 수출입 실적이 있는 기업(사업자번호 기준)
- 진입기업: 전년도(t-1) 수출입 실적이 없다가 당해 연도(t) 수출입 실적이 발생한 기업
- 생존기업: 전년도(t-1) 진입기업이 당해 연도(t)까지 수출입 활동을 지속한 기업
- 생존율: 진입기업이 시간경과에 따라 연속하여 수출입 활동한 비율

$$\cdot \text{생존율}(t\text{년도}): 1\text{년 생존율} = \frac{(t-1)\text{년 진입기업이}(t)\text{년까지 활동한 기업수}}{(t-1)\text{년 진입기업수}} \times 100$$

※ 권역구분: 5극(수도권: 서울·인천·경기, 중부권: 세종·대전·충남·충북, 대경권: 대구·경북, 동남권: 부산·울산·경남, 호남권: 광주·전남), 3특(강원특별자치도, 전북특별자치도, 제주특별자치도)

□ 2025년 기업무역활동통계(4.30일 공표)

(단위: 개사, 억 달러, 전년대비 %)

구분	활동기업			진입기업				퇴출(중단)기업*				
	2025	(증감)	(전년비)	2025	(증감)	(전년비)	(진입률)	2025	(증감)	(전년비)	(퇴출률)	
수출	업체 수	101,792	2,289	+2.3	25,953	673	+2.7	25.5	23,664	△272	△1.1	23.8
	교역액	7,074	254	+3.7	77	8	+11.4	1.1	136	75	+123.9	2.0
수입	업체 수	233,759	4,888	+2.1	65,751	36	+0.1	28.1	60,863	4,448	+7.9	26.6
	교역액	6,044	51	+0.8	51	5	+11.2	0.8	38	△5	△10.8	0.6
무역	업체 수	279,651	6,399	+2.3	73,325	590	+0.8	26.2	66,926	4,022	+6.4	24.5
	교역액	13,119	305	+2.4	108	19	+21.5	0.8	163	81	+97.7	1.3

* 퇴출기업의 경우 업체 수 및 교역액은 전년도 실적임

** 수출, 수입을 함께하는 경우(55,900개사) 중복제거로 수출+수입 업체 수를 합산한 수치보다 적음

□ 수출 생존기업 현황

<업체수>

(단위: 개사, 전년대비 %)

	2020년	2021년	2022년	2023년	2024년	2025년
활동기업	98,140	95,640	95,984	98,159	99,503	101,792
증감률(%)	△0.4	△2.5	0.4	2.3	1.4	2.3
생존기업	12,807	12,125	11,270	11,627	12,373	12,602
증감률(%)	△2.9	△5.3	△7.1	3.2	6.4	1.9
진입기업	25,984	23,303	23,659	25,158	25,280	25,953
증감률(%)	△2.9	△10.3	1.5	6.3	0.5	2.7
생존률*(1년)	47.9	46.7	48.4	49.1	49.2	49.9

* 생존률: 진입기업이 시간경과에 따라 연속하여 수출입 활동을 계속(1년)한 비율

<수출액>

(단위: 억 달러, 전년대비 %)

	2020년	2021년	2022년	2023년	2024년	2025년
활동기업	5,112	6,431	6,820	6,307	6,821	7,074
증감률(%)	△5.5	25.8	6.1	△7.5	8.1	3.7
생존기업	112	110	114	183	83	101
증감률(%)	0.7	△1.9	3.9	60.1	△54.8	22.7
진입기업	65	57	116	52	69	77
증감률(%)	△16.9	△11.5	101.3	△55.1	33.1	11.4